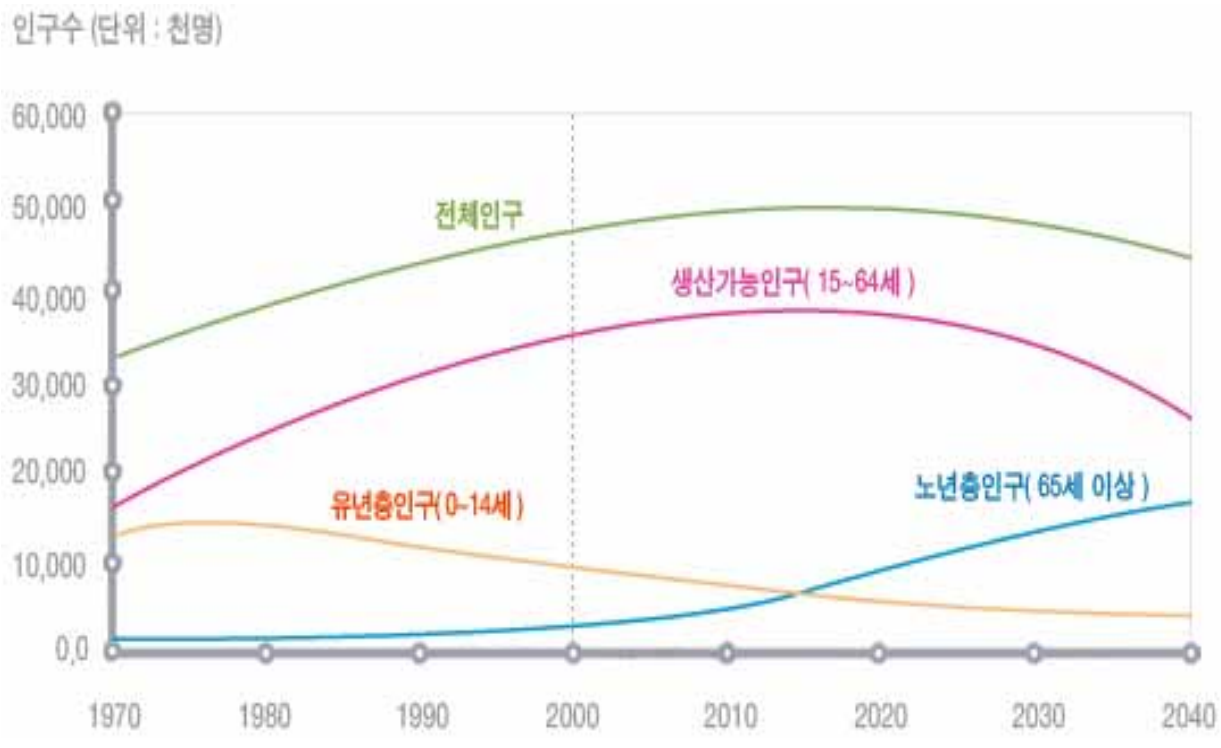
문항 1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구성추이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성추이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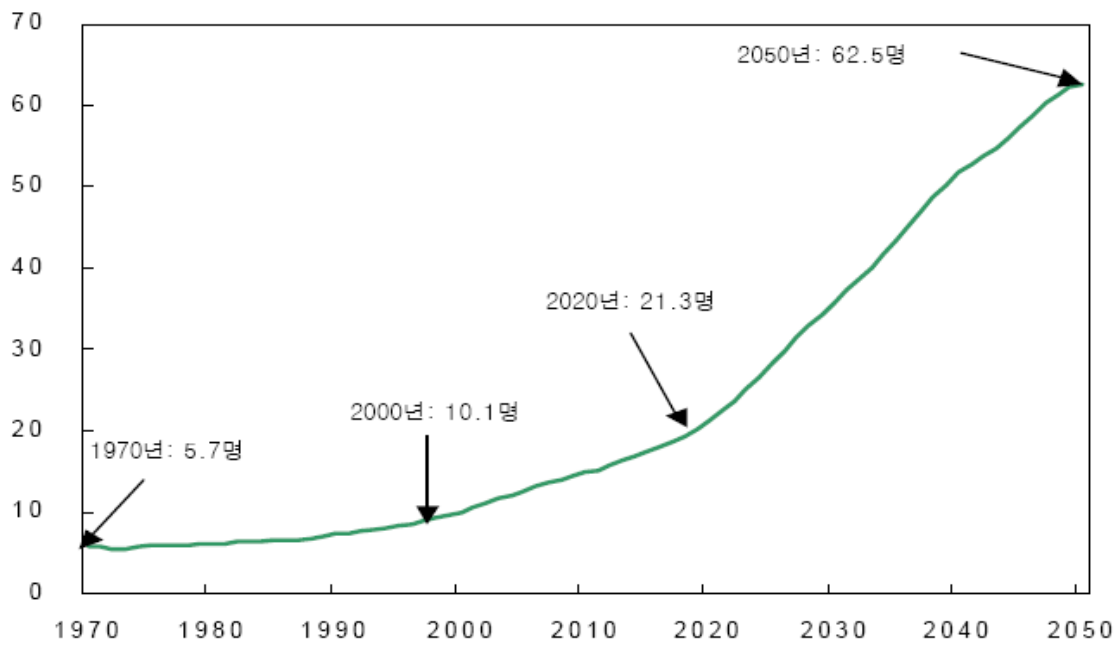
<가> 우리나라 연도별 출산율 및 평균수명

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출산율(명)	2.83	2.20	1.60	1.65	1.47	1.08
평균수명(세)	65.7	68.4	71.3	73.5	75.9	77.7

<나> 연령계층별 인구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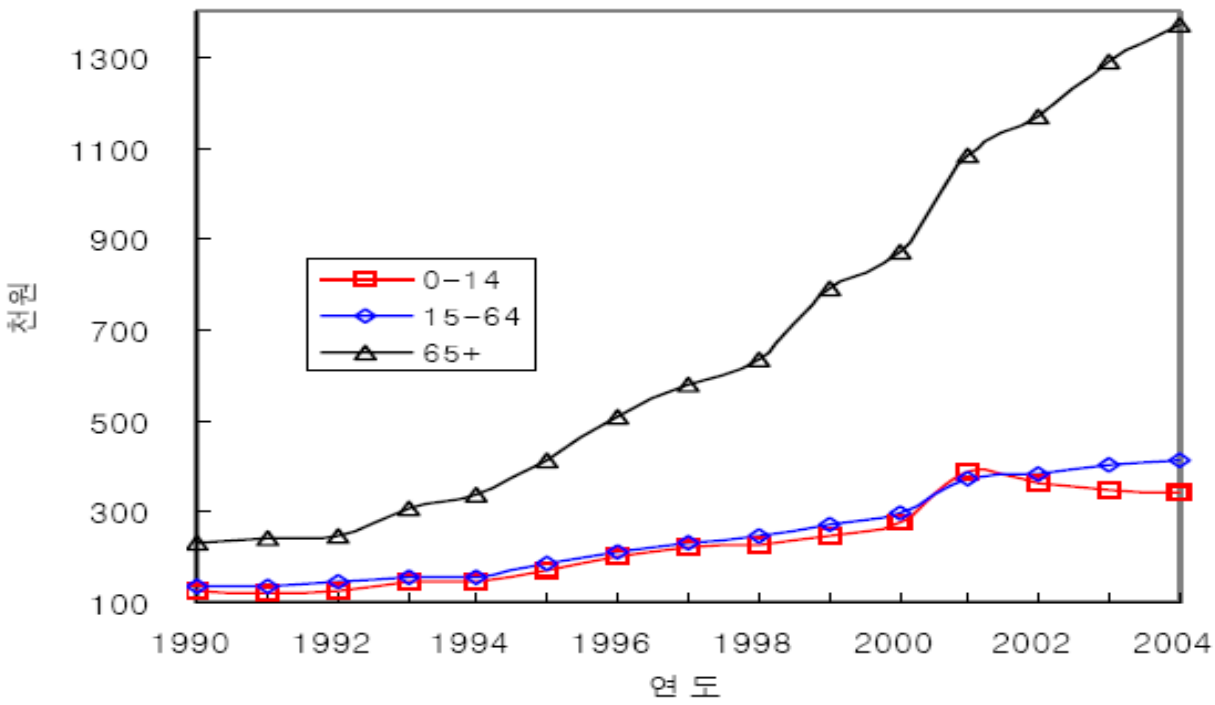


<다> 노년인구 부양비율 추이



㈜ 노년인구부양비율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라> 연령범주별 실질 1인당 보험진료비 변화



문항 2

영어 사용에 관한 제시문 ㉮와 ㉯의 입장을 비교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제시문 ㉮>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들 간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막는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방책들을 마련하고, 세계적 표준으로 채택된 것들을 우리도 채택해서 전환에 드는 큰 비용을 줄이는 일이 긴요하다.

지금 그런 기술적 장벽들 가운데 가장 큰 비용을 강요하는 것은 언어다. '지구제국'이 나타나면서, 국제어의 필요성은 부쩍 커졌고, 현대에 세력이 가장 큰 영어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했다. 언어가 사람의 삶에서 워낙 기본적인 도구이므로, 영어를 잘 쓰는 능력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술이 되었고 그 기술에서의 조그만 차이도 결정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영어를 잘 쓰는 기술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비록 그런 투자는 대부분 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규모는 무척 크다. 아쉽게도, 그런 투자의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런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사회적 기구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적 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일이다. 영어가 공용어가 된다면, 개인들의 단편적 투자가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영어를 공용어로 삼은 나라들이 거두는 혜택들은 많고 크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런 나라들에선 CNN이 세계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지만, 우리 사회의 텔레비전들은 그것들 가운데 일부만을 아주 압축해서 방영한다. 비록 작지만, 그런 차이들이 모인 장기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시민들이 영어를 보다 잘 듣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닌 나라 밖 사정에 대한 안목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삼는 일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제시문 ㉯>

지구화로 총칭되는 새로운 대세 속에서 영어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어 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진작부터 차지하고 있던 우리 사회에서의 비중에다 이 같은 대세가 가세함으로써 이 죄 많은 외국어는 가일층의 무게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핍박한다. 우리는 초초하고 조급하게 돈과 시간을 바쳐, 대개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이 물신을 숭배하는 예식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언어와의 접촉과 친교는 곧바로 현실을 지배하는 힘에 동참하는 것이요, 여기에는 물질적인 이득뿐 아니라 심리적인 우월감조차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혹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이니 영어에 대한 사회적인 광증을 어찌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영어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따르는 것만으로는 지구화의 현실에 맞서는 주체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언어의 침투는 삶의 전 국면에서 존재의 위기를, 삶의 의미의 위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의 도전을 도외시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식하지 못했던 모국어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모국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국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실현하고 있는 다수 민족구성원에게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것은 어느 사이에 내면화되어 있는 영어의 우월성 신화를 자각하고 그것과 싸우는 일과도 통한다. 즉 자기 속의 식민근성을 적발해 내고 새롭게 스스로를 이룩해 내려는 싸움이, 영어를 필수어로 배우고 접해야 하는 일상 속에서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신식민지의 민중이 처한 이중적이고도 자기분열적인 입지를 고려할 때 이 싸움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다.